

불교 · 기독교의 '현실개혁' 코드는 같습니다



길희성 교수가 참여 대중을 향해 열강하고 있다.

도대체 왜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야 할까? 개신교 신자로, 가톨릭 재단인 서강대에서 교수로 20년 넘게 불교를 가르쳐 온 길희성 교수. 종교간 이해와 소통에 앞장 서 온 그는 불교와 기독교의 궁극적 지향점이 같다고 말한다. 단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각 종교의 참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불자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의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보자.



강사 : 길희성(서강대 명예교수)

일시 : 2009년 7월 7일

주제 : 붓다와 예수

그리고 열반과 하느님 나라

장소 : 만해NGO교육센터

주최 : 참여불교재가연대

같은 완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갈등의 근본원인은 무지에서 오는 '편견' 하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며 종교갈등은 사회를 분열시킬 잠재요소로 점차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표출한 것입니다. 일차적인 원인은 개신교의 배타성과 호전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갈등의 가장 큰 근본원인은 상대종교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편견입니다.

기독교 신자들 중 불교의 심오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로 '우상숭배'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강연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에서 보는 불상과 탱화 등은 일종의 '시청각자료'다. 그 것은 상(像)에 집착하는 사람들(중생)을 무상의 세계, 더욱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부처님에게 '애 낳게 해달라' '시험 볼게 해달라'고 비는 것을 겉으로만 보기 때문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등의 명칭은 한국 고유의 문화와 관계 없기 때문에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떤 민중 신학자는 민중의 아픔과 한(恨)을 풀어줬다는 의미에서 '큰 무당' '한(恨)의 사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자'라고 비유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내면적인 면을 가장 잘 드러낸 명칭이 불교의 '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불교 문화권에서 탄생했다면 틀림없이 자비로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중생의 고통에 뛰어들어 보살상을 보았을 겁니다. 반대로, 만약 보살이 2000년 전 최박한 유대 땅에 출현했다면 필경 예수님의 모습으로 출현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본 '보살 예수'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치면 불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자신도 불함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로, 보편적인 진리인 '법'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반계에서 '법등명 자등명(法證明 自證)

라'로 표시하는 등 직설적인 표현조차 삼갔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늘나라가 임박했다' '자신의 삶을 접어두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신민으로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인 인격, 행동, 사람관계, 공동체 생활 등에서 보여줬습니다.

이후 그에 대한 기억이 복음서로 남고, 더욱 추앙심이 높아져 하나님과 동격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근본은 사회개혁, 참여로 나서야

교회는 기독교의 상징과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대형교회 부흥회 등에서 박수 치며, '이미 새 시대가 왔다' '구원받았다'는 자만은 큰 오산입니다. 삼페인 터트리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불교의 열반과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를 초월한 종말적 세계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현 사회 질서 등 존재론적 질서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苦)'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지 않고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진치의 세계가 계정해 삼학으로 정화돼 새로운 나, 사회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집과 상(相)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하나님 뜻이 사랑과 베품으로 이 땅에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교와 기독교는 코드가 같은 것입니다.

두 종교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사회에 안주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는 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에서 '나'라는 개체가 있으나 없느냐 그에 대해 따지기 어렵습니다. 불자들은 생사윤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나온 업을 책임질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사회참여에 더욱 뛰어들 때 이 사회는 각 종교의 존재 이유처럼 보다 맑은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리=노덕환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회에 안주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는 종교

'열반'과 '하나님 나라' 세상 질서 초월에 공통점

에 '우상숭배'라고 단정합니다.

또 불자들도 기독교를 알리고 하지 않습니다. 배타적, 호전적 기독교의 단편에 빠져 제대로 알아보려는 사람이 적습니다. 저는 스님이나 재가불자 중에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이 나와 불교계 내에서 불자들에게 상대종교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종교교육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예수 알아야 기독교 알 수 있어

그렇다면 불자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를 알기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국사람 입장에서 어떤

명'을 말씀 하셨지 자신(부처님)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불교의 위대성과 깊이는 한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집중보다 다르마(법)의 깨달음이 중요하데 있습니다. 그것을 깨치면 불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천국운동'을 벌인 '청년 예수'도 사립입니다.

'청년 예수'는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현실에서 보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예부터 하늘을 숭배하는 것처럼 유대교 하나님을 숭고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

#종교다원국가 한국

한국사회는 불교와 기독교가 양대 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단일의 주류종교와 낮은 비율의 소수종교로 된 구성을 보이는데 반해 두종교가 한 사회 내 막상 막하의 세력을 가지고 공존하는 한국사회는 매우 독특합니다. 한국사회는 명실공히 종교 다원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한국인의 민족성과 유교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민족 정체성이 종교 정체성보다 강합니다. 단일민족으로 언어와 민족이 같기 때문에 설명 종교가 다르다 하여도 큰 다름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과반수를 넘는 무종교 국민들과 불자들은 종교가 아닌 민족문화로서의 유교를 함께 가지고 종교

이력

서강대 명예교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1987년 개신교 초교파적 평신도 교회 '새교회회' 창립
진보신학으로 시민운동 펼침
주요저서 <인도철학사> <지혜, 선사상 연구> <보살예수> 등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짚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주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 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